로컬플러스

익산소방서 산악안전사고등 안전수칙 교육 실시

익산소방서 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경 용화산 일대에서 익산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안전사고 및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안전산행지도,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의 명산인 미륵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용화산이 있고, 용화산 북쪽에는 용리산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등산인구가 증가에 따라 등산객 보호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위해 용화산 이병기 생가 입구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를 시작으로 주변 등산로를 걸으며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등산 안전수칙 교육, 등산 전 스트레칭 및 혈압, 혈당체크 등 기초 건강검진과 산행구간의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교육진흥재단, 우수 중3 학생 관내 고교 진학 인센티브 지원 공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 올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선발 기준을 6월 3일부터 재단 홈페이지(www. edugunsan.org/)에 공고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전라북도교육청 6월 또는 9월 평가시험에서 전과목 155점 이상, 국·영·수 68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군산시 평준화 지역 고입선발고사(12월 16일) 성적(250점 만점)에서 상위 100위 이내 학생이 위 조건에 부합되면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타 지역 고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제외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112신고위치표지판 설치

군산경찰서 는 은파호수공원 등에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112신고위치 표지판'을 설치해 공감치안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신고위치표지판은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 및 주변 산책로에 위치표지판 60개와 설명표지판 6개 총 66개를 설치했다. 또한, 지난달 4일 개최된 치안협의회를 통해 군산시청과 협조하여 월명공원 산책로에 148개소를 추가 확대설치 중에 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112신고위치 표지판 설치확대로 신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안시스템 지속적으로 구축해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행자부 행정구역 조정 반대

입법예고 개정안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처사"

장관의 결정 따라 지차체 관할구역 조정하는 것

최근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 조정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논란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당초 지자체간 사전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관할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래의 경계조정은 지자체의 사전의 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지자체나 주민들 및 관계 국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독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아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까지 확대한 규정도 지자체나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 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조차 없는 지역까지 추가하여 경계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지자체의 자치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정구역부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결국 그 과정이 더디고 협의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시청사·시의회 현장교육 인기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어린이 시청사·시의회 견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 시청사·시의회 견학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시청과 시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해 직업체험을 통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다.

지난해 9개 학교 260명의 학생들이 방문했고, 2016년 현재 3회에 걸쳐 84명이 다녀갔으며 6월 말까지 157명의 어린이 견학이 예정된 상태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시청 및 시의회 방문을 통해 군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주)대아패션주얼리 익산 산단 분양계약 체결

20억원 투자 공장 설립…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에도 입주 추진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해 온 ㈜대아패션주얼리(대표 최인수)가 익산에 새 둥지를 틀기 위해 지난달 30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대아패션주얼리는 10여년 넘게 중국위해지역에서 중·고가 패션주얼리 제품을 생산을 해온 기업이다.

지난해 5월 투자협약(MOU) 체결이후 국내최고 도금시설과 실험시설을 갖춘 R&D센터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협력업체 입주공간인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준공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본격 투자를 추진했다.

㈜대아패션주얼리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 20억원을 투자해 5,344㎡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집적산업센터에도 함께 입주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2008년도를 정점으로 미주지역 및 유럽지역의 경기가 장기간 침체 일로에 접어들면서 중국지역 등에 진출한 주얼리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분양계약은 향후 해외진출기업 유치를 위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주얼리집적산업센터에는 45개 공장과 소매점이 들어설 공간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현재 16개 기업(38실)이 입주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미국 경기가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국내·외 주얼리기업들이 익산을 주시를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대화합 공동선언문' 채택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대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실천해 갈 것을 다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동자, 사용자, 주민, 정부 대표자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익산시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노사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노·사·민·정 대표가 하나 된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기업경쟁력 향상에 적극 동참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과 양보, 배려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동참한다. 경영계는 불합리한 근로관행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약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식품기업 2개사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양해각서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식품기업 2개사 ㈜LCM코리아, ㈜IS바이오 및 식품관련 기관인 (사)전통가공식품협회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LCM코리아는 미국 식약청(FDA)산하 국제과학연구소의 한국 및 아시아지역 총괄법인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 건강기능성 식품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IS바이오는 2015년에 설립되어 국내 유기농 인삼을 활용한 홍삼엑기스 음료제조 기업으로 2017년 상반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투자양해각서 기관인 (사)전통가공식품협회는 전통식품업체들의 판로개척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설립되어 전국에 9개지사와 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임한경 과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MOU체결을 결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공동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에 필요한 과정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맞춤형 창조경제 추진 부가가치 창출 계획

군산시는 국가적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군산 맞춤형 창조경제 추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기존 산업에 ICT를 융·복합한 첨단화로 산업의 체질 개선, 관련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도모,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까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주요전략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산업 구축을 통한 미래 농업 육성 ▲ICT 연구기관 유치 및 디바이스 산업 육성 ▲문화자원과 CT(문화기술) 융합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IoT 기반 스마트 도시 구축 등이다.

시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군산시발전협의회 산하 미래전략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소속 위원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 발전 정책개발 및 국가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